

# 윤 대통령 “오랜만입니다”...이재명 대표 ‘미소만’

## 국회 시정연설서 사전 환담

### 현 정부 출범후 사실상 첫 소통

#### 尹 “어려운 문제 많아...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현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처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 관심이 쏠렸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마주쳐 짧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감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전환담도 불발됐다.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접견실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하며 짧게 악수했다.

윤은 미소를 띠 이 대표는 별도 답변은 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서기 13분 전인 오전 9시 29분께 미리 도착해 있었다.

5분 뒤 입장한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상당 기간 무리를 (했으니)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 단식하면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더 애가 탄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표는 고개만 끄덕였다.

윤 대통령은 환담 모두발언에서 “자리를 만들 어준 의장님께 감사하다”며 “여야, 정부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저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데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

서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가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또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특단의 각오를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며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때로는 예산을 편성한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예산안이 적기에 준비될 수 있다. 여당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사전 환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비공개 환담에서 민생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담에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자리했다.

5부 요인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외 순방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관련 얘기를 대통령이 했고, 이재명 대표도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민생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사전환담을 마치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게 세 가지 당부를 했다”며 “먼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꼭 만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존중해달라고 했다. 그간 대통령 거부권을 너무 많이 썼다. 이제는 더 이상의 거부권은 안 된다고 했다”며 “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의 협치·소통의 장이 될 일일상적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관련 얘기를 대통령이 했고, 이재명 대표도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민생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를 존중해달라고 했다. 그간 대통령 거부권을 너무 많이 썼다. 이제는 더 이상의 거부권은 안 된다고 했다”며 “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의 협치·소통의 장이 될 일일상적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의정실에서 열린 국회 의정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尹 시정연설 국힘 의원들 32차례 박수...野 의원들은 외면

### 민주당,尹 입장때 ‘피켓 시위’

#### 27분 연설후 여야 의원들과 악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박수를 치는 등 열띤 호응을 보였지만 야당은 연설 내내 냉담한 반응이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여당 의원들의 기립 박수 속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자리를 지켰지만, 윤 대통령을 외면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약 27분 20초간 연설 동안 박수는 총 32차례 나왔다. 이는 지난해 야당 의원들 없는 시정연설의 19차례보다 더 많은 박수 세례다.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마다 적극적으로 박수치며 호응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한차례도 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하자, 연설 이후 첫 박수가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 등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박수로 화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킬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정준숙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휴대전화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연설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이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민주당 의석 쪽에서 “아유”라는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단상에서 내려와 6분 가량 여야 의원들과 악수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었고,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퇴장 전까지 박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다가가지자 여당 의원들이 통로에 몰려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만희, 이상범, 백종현, 서범수, 양금희, 박성민 의원 등과 차례로 악수했고 국민 의원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와도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김예지 의원과 인사하며 옆에 앉아있던 안내건 ‘조이’를 짧게 쓰다듬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체결한 ‘정쟁 자제’ 신사협정 덕분에 야우나 고성

은 등장하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내걸지 않았지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홀로 ‘D-160 반드시 무너뜨린다 피눈물 난다! 서민 부채 감면!’, ‘죽인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시위를 펼쳤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연설이 끝나고 의원들과 악수하는 동안에도 피켓을 반쯤 들어 올렸지만, 윤 대통령은 눈길을 주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피켓 시위’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한 오전 9시 41분께 로텐더를 계단에서 ‘민생경제 우선’, ‘국민을 두려워하라’, ‘민생이 우선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이 마중 나온 김진표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피켓을 들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자, 일부 민주당 의원은 “여기 한 번 보고 가세요”, “여기 좀 보고 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작년 시정연설 때도 로텐더를

에서 ‘야당 탄압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정당 현수막 난립 막는 법안 법안소위 통과

### 9일 본회의 의결 예정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법안이 지난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고,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 시행 시기는,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나가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간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법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납세자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